

시민대중 제작 시민 갈등 증폭

대책위, 경기침체 상황 반강제적 모금 반대이유 추진위, 거짓과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혼란 가중

포천시시민대중 제작과 관련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대책위가 용정회관에서 '포천시시민대중에 관한 시민대중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대중 제작의 부당성을 밝히자, 그 다음날 3일 추진위는 유림회관에서 '포천시시민대중 추진위원회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대중 제작의 당위성과 대책위 주장을 반박하는 등 양측간에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일 토론회 사회를 맡은 대책위 윤민구 변호사는 "시민대중 제작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가 아니고 종(鐘) 제작에 관한 시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종 제작을 반대하는 시민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 측은 "무식하면 재앙이다.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다. 공무원이 종이다. 종이 주인을 무시하면 그 집안은 망한다"고 말하는 등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면서 시민대중 제작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했다.

대책위 공동대표를 선임된 이희용씨는 "지난 3월 포천장, 송우장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0%가 시민대중 제작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반대 이유로 경제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합의 없이 반강제적인 모금운동 등이 시민대중 제작반대의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참석한 포천소재 모교고 교사는 "포천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동전모으기 협조 공문을 발송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발송한 공문 내용을 각 학교 교장들이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느냐"면서 "각급 학교가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에 참여했다기 보다는 강제성이 부여됐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윤민구 변호사는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측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시민대중 제작추진과 관련해 공개된 장소에서 추진위원회와 반대대책위원회간 토론회를 가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대중 제작추진위원회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시민대중 제작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견은 전혀 개진되지 않고 대중제작 추진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의견만 제기됐다.

반대 대책위원회의 토론회를 지켜본 제작추진위원회는 대책위 주장에 대해 지난 3일 '포천시시민대중추진위원회 기자회견'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최종규 추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책위 주장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와 시민대중 제작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공개토론회는 찬성과 반대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객관성이 있는 제3자가 주관해야 한다"고 말하고 "여태 진행된 공개토론회는 위와 같은 계획과 격식, 절차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위원장은 "그동안 있었던 포천시시민대중 제작추진 사업과 관련해 포천사랑시민연대, 포천시청, 포천신문 등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 또는 인터뷰는 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거짓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주하면서 토론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시민대중추진과 관련, "지난 5월10일부터 포천사랑시민연대, 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종(鐘)제작 재원확보 방법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대책위의 총 제작비 9억8천만원 중 시민모금 6억원, 예산 3억8천만원 주장과 시민모금 6억원을 시민1인당 4,000원씩 거두면 된다는 내용이 시의 발상이라고 한 주장은 전혀 근거 없이 날조된 거짓"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중 제작과 관련해 시민의

견 수렴이 없었다는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제작추진위 위임 대부분이 각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이 약 2천300여명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대중제작사업 추진 설명회를 가졌다"고 말하고 "공무원 강제성 모금과 마을단위별 20만원 할당 주장은 강도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월 포천장, 송우장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사전 대중제작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가득 찬 전단지를 보고 찬성과 반대 판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한 것은 조사표준과 설문내용이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남의 글을 인용해 교묘하게 범람을 피해가는 모습은 떳떳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에 자신이 없으면 자진 사퇴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행동은 상수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일부에서 본 사업을 저지하려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을 그만 두기에는 시기가 늦었다"고 말하고 "남이 하는 일을 저지하려 하지 말고 참여를 안 하면 그만인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도시기본계획

소출권 포천도심권 일동권 영북권 등 4개권역으로 개발

포천시 도시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포천도시기본계획(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최종 심의중으로 올 연말 확정될 전망이다.

포천시가 제출한 '포천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21세기 市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먼저 도시특성과 기능에 걸맞는 '장기 개발방향 제시 및 도시공간구조 개편',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살린 '균형적인 발전모색', 무계획적인 난 개발을 방지 차원의 '선 계획-후개발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포천도시기본계획(안)'은 1읍, 11면, 2동의 시 행정구역 전역(826.64km²)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 기준연도는 2002년, 목표 연도는 2020년으로 돼 있다.

도시개발 전략은 자족적 전원도시, 친환경적 도시, 연구산업도시, 관광휴양 도시로 설정하고 각 부문별 실천사업은 ▶자족적 전원도시 부문은 신도시 조성, 권역별 특화사업, 도시철도 연장 ▶친환경 도시 부문은 수계, 녹지축 보전관리, 자연형 하천조성, 지역 이미지 제고사업 ▶연구산업 도시 부문은 대전테크노파크 조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개발단지 공장지의 정비 ▶관광휴양 도시 부문은 종합휴양리조트 개발, 관광네트워크 조성, 권역별 특화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 문화체육시설 21개소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 생활권 설정
생활권은 소출권, 포천도심권, 일동권, 영북권 등 4개권역으로 설정하고 소출과 가산, 내촌을 묶은 소출권은 현재 인구 4만9천여명을 11만6천명까지 증가한다. 또 포천동과 선단동을 묶는 포천도심권은 현재 인구 5만7천여명이 17만1천명으로 설정하고 주거, 상업, 교육, 문화, 행정기능 도시로 육성한다. 일동권은 현재 인구 2만3천여명을 2만9천명으로 주거, 휴양, 관광, 위락, 농업기능 도시로 육성, 영북과 영중,이동, 관인, 창수를 묶는 영북권은 현재 인구 2만6천명을 3만4천명으로 주거, 상업, 산업, 관광, 농업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 토지이용계획
1도심(포천) 3지역중심(소출, 영북, 일동) 체계를 확립하는 도농복합도시로 공간구조 개편을 통해 인구 및 도시발전 수요를 감안한 적절한 토지를 확보하고 포천시 도시 개발축과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자족기능의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시가지는 상업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환경친화적인 시가지 개발을 도,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정비·확충, 문화도시형 성장산업의 개발 등 도심과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내면과 가산면 일원 35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인구 15만명의 주거, 상업, 행

정, 산업, 위락기능의 복합타운을 개발할 예정이다.

■ 환경의 보전 및 관리계획
환경보전에 관해 환경관리 장기적인 목표설정 및 지속적 관리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하천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도시 계획수립 체계구축과 녹지축 단절 및 완충지대의 부재에 대한 체계적인 녹지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다. 또 상수도 보급을 현재 일일 4만2천여톤의 용수량을 2020년에는 14만3천톤으로 확대하고 공업용수 또한 현재 8천500톤에 불과한 것을 3만톤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 공원·녹지계획
관광지와 체계적으로 연계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포천시의 도시공원은 총 23개소 2,754km²로 도시기본계획구역 면적의 3.3%를 차지하며 도시자연공원 2개소 1,056km², 근린공원 8개소 1,625km², 체육공원 1개소 0,022km², 어린이 공원 12개소 0,031km²로 결정되었으며, 녹지실시는 인공기능을 위한 완충녹지 시설이 21,395m²로 지정됐다.

■ 산업개발계획
분야별 개발계획은 농업과 상업 및 공업분야로 나누고 농업분야는 영농과정을 체계화하는 관광농업육성, 지역농산물에 대한 차별화 전략 마련, 농축산물 유통정보와 기반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업분야는 관광자원과 유통서비스간 연계체계 구축, 기존 상업시설 정비 현대화 추진, 도시철도 역사 중심 역세권 개발, 서울과 의정부 지역향 상권 발달, 포천정기 시장을 관광 상품화 등이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약호박으로 시민건강 약속”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에서 승진비료를 운영하며 농업을 겸하고 있는 최영주(57) 씨 밭에 대형 호박이 열려 화제다.

지난 7일 밭에서 수확한 약호박은 최씨가 이웃에게서 일반 종자의 약호박 씨앗을 얻어 심은 것이다.

혼자보고 있을 수 없어 포천시민과 함께 감상하기 위해 재배했다는 최씨는 "예로부터 약용으로 쓰이는 약호박이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포천시민들에게 작은 웃음을 만들어 주는 약으로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 씨의 밭에서 수확한 약호박의 무게는 15.75kg이고, 둘레는 가로 145cm, 세로 110cm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秋夕 선거법위반 특별 단속

위반시 50배 과태료, 최고 5천만원 포상금 지급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금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 원벌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

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선거법이 구조적·자선적 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있어 선거와 무관하게 제공하는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 등 경도당 및 불우시설에 대해 지원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031-535-2243, 1588-3393)로 하면 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담은... 꽃샘 추석종합선물세트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꽃샘고려홍삼물세트
홍삼 1000g



꽃샘토종고구리1호
토종꿀 2400g
꽃샘토종고구리3호
토종꿀 1200g



꽃샘특선봉밀1호
집화꿀 2200g
꽃샘특선봉밀2호
집화꿀 1700g



꽃샘 1호
아카시아꿀 1200g
집화꿀 1200g



꽃샘 5호
꿀대추차 1000g
꿀유자차 1000g
꿀솔잎차 1000g



꽃샘 6호
꿀대추차 1200g
꿀유자차 1200g



꽃샘 4호
영지꿀차
솔잎꿀차 × 600g
대추꿀차

꽃샘 기획세트 2호
영지 꿀 차 1200g
집화 꿀 1200g

(주)꽃샘종합식품(대표이사: 이상갑)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40 TEL.031)541-9921(대) FAX.031)541-9933 www.ksfs.co.kr 소비자 상담실 전화번호는 080-541-9920